

봤느냐! 화순고 '라켓 소녀단'

전국중·고배드민턴선수권 여고부 단체전 우승...결승 접전 끝 창덕여고에 3-2 승

화순고 배드민턴팀이 가을철중고선수권대회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화순고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경북 청송에서 열린 2021 전국 가을철 중·고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창덕여고를 3-2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여고부 단체 B조에서 대회를 시작한 화순고는 청송여고B와 창덕여고에 각각 3-1, 유봉여고에 3-0, 포천고A를 3-2로 꺾고 조별예선 4승 전승으로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김천여고A를 상대한 화순고는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3-2로 역전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는 정다연(2년)과 공여진(2년)의 활약으로 광주체고를 3-1로 완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조별예선 B조에서 함께 만난 창덕여고와 리턴매치가 펼쳐졌다.

화순고는 1세트와 2세트 단식에서 정다연과 공여진이 내리 승리를 거두며 2-0으로 앞서갔으나, 복식경기인 3세트와 4세트에서 내리 패배하며 5세트까지 경기가 이어졌다.

5세트에서 이재은(3년)이 이다은을 2-1로 꺾으며 기나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화순고 배드민턴 팀. 왼쪽부터 이재은·정은지·김명현 코치·정다연·공여진·박가은. (전남도체육회 제공)

'팀 킴' 올림픽 도전 파란불 한국컬링선수권 1차전 우승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 신화를 쓴 '팀 킴' 강릉시청(스킵 김은정)이 '컬스데이' 경기도청(스킵 김은지)을 꺾으며 2년 연속 국가대표에 파란불을 켜다.

2020-2021시즌 국가대표인 강릉시청은 28일 강원도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21 KB금융 한국컬링선수권대회 1차전 여자부 결승에서 경기도청을 11-6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강릉시청은 4엔드까지 4-1로 앞서지만 5엔드에 3점을 내줘 동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6엔드에 2점 달아내고, 7엔드에는 1점을 스틸하며 7-3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경기도청은 8엔드 1점 차로 추격했다.

강릉시청의 스킵 김은정은 9엔드 마지막 스톤으로 하우스 중앙에 있던 경기도청의 스톤 2개를 모두 쳐내면서 4점을 대거 올렸다. 결국 경기도청은 강릉시청의 승리를 인정하고 10엔드를 포기했다.

이 대회는 2021-2022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다. 선발전은 1~3차전에 걸쳐 열린다.

1차전 우승팀이 2차전에서도 우승하면 태극마크를 달게 된다. 1차전 상위 4개 팀이 출전하는 2차전에서 다른 팀이 우승하면, 3차전을 벌여 1-2차전 우승팀의 맞대결로 최종 국가대표를 정한다.

이번에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2022 베이징동계 올림픽에 도전할 수 있다.

스킵 김은정, 서드 김경애, 세컨드 김초희, 리드 김선영, 후보 김영미로 구성된 강릉시청은 평창 올림픽에는 경북체육회 소속으로 출전해 은메달을 목에 걸고 컬링 열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하며 부진을 겪었고, 올해 강릉시청으로 이적해 새 출발 했다. 팀 킴이 강릉시청 소속으로 대회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이정수(오른쪽) 선수와 어머니.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성인 참가 전국대회 '중학생 돌풍'

전대사대부중 이정수 전국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서 동메달

전대사대부중 이정수가 성인들이 참가한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중학생 돌풍'을 예고했다.

이정수는 최근 서수원정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경기도지사배 겸 전국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단식(SU5) 준결승전에서 국가대표 김기연(서울의료원)을 만나 0-2(13-21, 17-21)로 패했다.

만 15세 이정수는 8강에서 송일성(경기도)을 세트 스코어 2-0(21-11 21-14)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 성적은 이정수가 수영에서 배드민턴으로 전향한 지 2년 만에 이룬 쾌거다. 성인과 중학생들이 다수 참가한 대회에서 이같은 성적을 일궈내 주목받았다.

이정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영에 입문해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출전한 바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에서 배드민턴을 시작해 그 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인선수로 발탁될 만큼 탁월한 기량을 선보였

다.

이정수는 현재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동구스포츠클럽 활동과 전대사대부중에서 훈련하고 있다.

그는 오는 8월 '제2회 세종시장배 겸 2021년 춘계전국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도전을 이끈다.

이정수는 "더없이 기쁘다. 지금부터는 남은 전국대회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체고 박선규·김찬송 금메달

전국육상대회 400m·허들 100m 각각 우승

광주체고 박선규(3년)와 김찬송(1년)이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최근 막을 내린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일궈냈다.

박선규는 제21회 한국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400m에서 금메달을, 400m허들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박선규는 400m 예선을 49초27로 통과한 뒤 결승에서 48초93으로 1위를 차지했다. 49초14의 박종희(김해가야고)가 2위, 49초43의 신현서(경기체고)가 3위를 기록했다.

박선규는 400m허들에서 간발의 차로 금메달을 놓쳤다. 박선규는 52초96을 기록, 52초92의 조취인(덕계고)에 뒤져 2위에 올랐다. 3위는 55초01의 채중호(성균관대)가 차지했다.

광주체고는 남자 4×100mR에서 양홍석·위광우·최주안·김유훈이 출전, 42초85로 은메달을 추

가했다. 1위는 한국체대(42초18), 3위는 은행고(45초55)에게 돌아갔다.

제12회 한국U18육상경기대회에서는 김찬송이 여자 100m허들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김찬송은 14초70으로 유일하게 14초대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1위의 기쁨을 누렸다. 2위는 15초54의 여채빈(서울체고), 3위는 16초07의 변수미(경기체고)였다.

박강빈(1년)은 여자 세단뛰기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10m81을 뺀 박강빈은 장상이(경북체고·11m58), 김성아(예천여고·11m21)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이민재(2년)는 남자 10종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고는 남자 4×400mR에서 43초43으로 목포문태고(43초18)에 이어 2위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강철현·양창식·임재운·정도엽이 호흡을



광주체고 육상 선수들. (광주시체육회 제공)

맞췄다.

남자 4×100mR에서도 광주체고 양창식·윤민혁·임재운·정도엽이 출전, 3분27초26으로 서울체

고(3분23초55)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은메달을 손에 넣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프랑스오픈 준우승 치치파스

윌블던 테니스 1회전서 탈락

2년 만에 열린 윌블던 테니스대회(총상금 3501만6000 파운드·약 551억원) 첫날 남녀 단식에서 강자들이 잇따라 거꾸러졌다.

스테파노스 치치파스(4위·그리스)는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1회전에서 프랜시스 티아포(57위·미국)에 0-3(4-6 4-6 3-6)으로 완패했다.

치치파스는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에서 4강, 이달 13일 끝난 프랑스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상승세가 꺾였다.

치치파스는 4대 메이저 대회 중 윌블던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번 대회까지 총 4차례 단식 본선에 나서 2018년에만 4회전까지 올랐을 뿐, 나머지 대회에서는 모두 1회전 탈락했다.

티아포는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단식에서 통산 1차례 우승했으며, 메이저 대회에서는 2019년 호주 오픈에서 8강에 오른 게 최고 성적이다.

여자 단식에서는 페트라 크비토바(10위·체코)가 슬론 스티븐스(73위·미국)에게 0-2(3-6 4-6)로 제 1회전 탈락했다.

1990년생인 노장 크비토바는 2011년, 2014년 윌블던 단식에서 두 차례 우승한 선수다.

2017년 US오픈 단식에서 우승했던 스티븐스는 2019년 랭킹 3위까지 오른 뒤 하락세를 보여왔다.

스티븐스는 이날까지 크비토바와 상대 전적에서 3승 1패로 앞서 '천적'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통산 20번째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우승에 도전하는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는 잭 드레이퍼(253위·영국)를 3-1(4-6 6-1 6-2 6-2)로 꺾고 2회전에 올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발신제한
2관	발신제한
3관	인 더 하이츠,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웬디 블라이스 스피릿
4관	미드나이트
5관	과이어트 플레이스 2, 레일로드 워
6관	크루엘라
9관	다크 앤드 워키드, 인 더 하이츠 킬러의 보디การ์ด 2
7관 씨네커몰	발신제한
8관 씨네커몰	미드나이트, 빛나는 순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I

김민지 첼로 리사이클

일시: 2021. 07. 13.(화)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4 차진엽의 지구 모자이크화

일시: 2021. 07. 28.(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